



11월 18일(토) 12:00(행사종료) 이후 사용

비고

담당

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물관리팀

팀장 이현우, 사무관 조영주
(044-200-2243, 2237)

이낙연 국무총리, 4대강 보 확대개방 추진 상황 점검

- 금강 백제보 방문, 보 개방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등 대책 강조 -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8일(토) 오후,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금강 백제보를 방문해 4대강 보 추가개방 진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.

* 참석 : 안병욱 환경부 차관,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, 이용우 부여군 군수,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

○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13일(월)부터 4대강 보 확대 개방이 시작됨에 따라 보 개방 진행상황을 점검하고, 지하수 이용이나 농업용수 문제 등 지역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없는지 직접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습니다.

□ 이 총리는 안병욱 환경부 차관으로부터 4대강 보 개방현황과 모니터링 확대계획, 보 추가개방에 따른 현장대응 계획과 내년도 영농기 대비 농업용수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.

□ 한편, 정부는 내년 말로 예정된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위해서 11월 13일부터 7개보* 확대개방에 착수했고, 모니터링 대상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했습니다.

* 낙동강 합천창녕·창녕함안보, 금강 세종·공주·백제보, 영산강 승촌·죽산보

- 아울러, 개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여러 단계로 나눠 수위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, 필요시 개방을 중단하고 현장조치를 취하는 등 보 개방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.